

시청률보다 온라인 파급력…10대에 꽃히다

시청률 낮아도 온라인서 큰 영향력
청소년 고객 활용한 경제효과 기대
예능은 10대 프로그램 줄줄이 대기
KBS도 12월 드라마 ‘팬텀걸즈’ 예정

드라마 시장이 10대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방송중인 케이블채널 XtvN ‘복수노트2’와 웹드라마 ‘에이틴’이 10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또래 사이에서 상당한 입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12월 방송을 앞둔 KBS 2TV ‘팬텀걸즈’와 내년 방송 예정인 ‘좋아하면 울리는’도 10대를 내세운다.

‘복수노트2’는 복수를 대행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인 복수노트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시즌1의 동영상 누적 조회수가 1100만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고, 올해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별 편성됐다. ‘에이틴’은 남학생과 여학생 각각 3명의 얽히고설킨 풋풋한 로맨스를 보여준다. 10대의 재기발랄함과 순수함, 자유분방함을 담아 또래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

연말 방송을 앞둔 ‘팬텀걸즈’는 경남 거제도에 사는 댄스스포츠 동아리 여고생들



10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XtvN ‘복수노트2’의 한 장면. 주요 시청층이 10대라는 점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파급력과 영향력은 막강하다. 사진제공 | 허트시퀀스

이 화려한 꿈보다는 평범한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며 성장하는 내용을 담는다. 드라마는 지난해 4월 방영한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 ‘팬텀걸즈’가 원작이며, 영화로도 제작된 바 있다. 동명의 웹툰이 원작인 ‘좋아하면 울리는’은 반경 10m 안에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매개체로 벌어지는 고등학생들의

로맨스를 담는다.

지상파에서는 청소년드라마나 학원물이 점점 자리를 잃으면서 10대를 대변하는 콘텐츠가 줄어가는 추세이지만 온라인에서는 활발하다. 웹드라마 ‘방과 후 연애’ ‘열일곱’ ‘봉인해제 13세’ 등이 10대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 빈도가 높은 ‘모바일 세대’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

춘 전략이다.

방송사들이 10대 드라마에 주목하는 이유는 ‘화제성’이다. 10대를 위한 드라마다 보니 시청률은 기대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화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다양한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예능프로그램은 이미 10대를 정조준했다. 올해 초 엠넷 ‘고등래퍼2’가 높은 인기를 얻은 가운데 10대를 주인공으로 하는 SBS ‘방과 후 힙합’과 MBC ‘언더나인틴’ 등 오디션프로그램이 올 가을 방송을 앞두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를 겨냥해 1월 개국한 XtvN 채널은 향후 10대 맞춤형 프로그램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또래집단에서 확산되는 화제성에 주목한다는 계획이다.

XtvN 관계자는 22일 “10대 타깃 콘텐츠는 현실적으로 시청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10대는 놓칠 수 없는 시청층이다. 이들을 통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화제성은 시청률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른 연령보다 이들이 만들어내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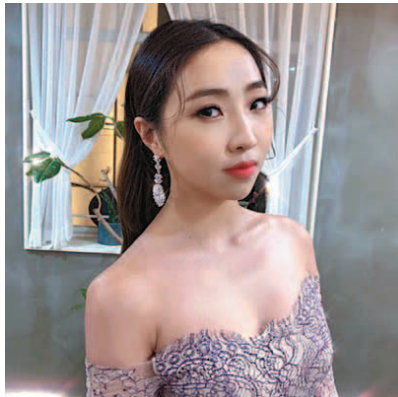
연예

13

2018년 8월 23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킷



‘결크러시’ 공민지의 반전매력

공민지가 여성스러운 태도를 뽐낸다. 결크러시 때려이 뽐보였던 그가 드레스를 차려 입었다. 어깨를 훤히 드러내고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다. 귀걸이와 메이크업까지 완벽해 변신이 더욱 눈에 띈다. 팬들은 “반전매력이다” “공민지도 여성스러운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낸다.

백솔미 기자

#스포츠동아 #공민지 #반전매력 #여신미모들

알쓸연잡 <알아두면 쓸모있는 연예 잡학사전>

경찰·소방관 체험 예능 충분한 교육·훈련 심혈

13일 방송을 시작한 MBC에브리원 ‘바다경찰’은 부산 바다를 배경으로 스타들이 해상경비, 해난구조, 해상환경보존 등의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담는다. 연기자 김수로 조재운 박시양과 걸스데이 유라가 출연 중이다. 앞서 1월 종영한 ‘시골경찰’엔 신현준 이정진 등이, 2013년 방송한 SBS ‘심장이 뛴다’에선 조동혁 최우식 전혜빈 등이 소방관을 체험했다.

경찰관이나 소방관은 시민들의 목숨, 치안과 직결된 특수한 직업군이어서 출연자들에게 전문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바다경찰’ 출연자들은 임용식에 앞서 일정기간 인명구조법과 호신술 등 경찰기초훈련을 받았고, 해양경찰청의 지원 속에 해양경찰의 임무를 습득했다. 서울 한강과 실내수영장 등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익혔다. 팀워크가 중요해 단체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다.

근무지인 부산해양경찰서 남항파출소에서는 업무 촬영 영상을 보고 설명을 들은 뒤 실제로 발생했던 상황으로 모의 훈련하며 신속·정확한 판단으로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세 등을 배우기도 했다.

‘시골경찰’ 출연자들은 경찰학교 훈련을 거쳐 경북 영주경찰서 관할 내 치안센터의 순경으로 민원을 해결했다. ‘심장이 뛴다’ 출연자들은 부산 해운대소방서 119 안전센터와 구조대에서 합숙 훈련하며 촬영을 진행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프로그램에 임하는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특히 중요하다. ‘바다경찰’ 관계자는 “예능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모든 출연자들이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실화 같은 ‘목격자’…‘제노비스 신드롬’의 힘

<목격자 많을수록 책임감 분산돼 방관하는 심리>

1964년 美 제노비스 사건과 유사
섬뜩한 공포…170만 관객 질주 중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 ‘목격자’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뜨겁다. 영화를 본 관객 사이에서 실화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허구의 이야기인데도 마치 어디서 많이 본 듯 익숙한 기시감 탓이다.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한 이성민 주연의 ‘목격자’(제작 AD406)가 2주째에도 기세를 이어가면서 누적관객 170만에 다다랐다. 대단치 아파트에서 벌어진 치참한 살인사건을 목격하고도 방관하는 주민들이 만들어내는 섬뜩한 이야기가 관객에 서늘한 공포를 선사하면서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영화 관람평 가운데는 유독 ‘목격자’가 실화를 바탕에 둔 건 아닌지 추적하는 내용이 많다. 시나리오를 쓴 조규장 감독이 “개인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도 결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그리려 했다”며 인물과 설

정 모두 허구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지만 ‘의구심’의 시선은 사라지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지 않던 관객들은 기어코 1964년 미국 뉴욕의 한 주택가에서 일어난 제노비스 사건을 찾아내 ‘목격자’와 비교하고 있다. 이는 키티 제노비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30여분 동안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자신의 집 창문으로 지켜본 주민이 38명에 이르는데도 누구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건이다.

당시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던진 이 사건은 이후 ‘제노비스 신드롬’으로 명명됐다. 목격자가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개인이 느끼는 책임의식이 약해져 위험에 처한 대상을 방관하게 되는 심리현상을 의미한다.

‘목격자’의 핵심 주제 역시 제노비스 신드롬과 겹친다. 처음엔 주인공 상훈(이성민) 혼자만 목격한 줄로만 알았던 살인사건 현장을 숨죽여 지켜본 아파트 주민이 더 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날 때 관객이 느끼는 충격과 공포의 무게도 상승한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11년 열애·17세차…이하늘의 순애보

(DJ DOC)

10월10일 난관 딛고 제주시 웨딩마치

10월 결혼하는 그룹 DJ DOC 이하늘(이근배·47)의 이야기에는 한 여자를 향한 순애보가 녹아 있다.

이하늘은 11년 동안 교제한 17세 연하와 10월10일 제주도에서 결혼한다. 이하늘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 지금까지 서로 의지하고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

22일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하늘은 그룹 활동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2007년께 인천으로 거처를 옮기고 동네에서 작은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했다. 이후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여자친구를 처음 만나 서로 의지하며 실내 포장마차도 함께 꾸려나갔다.

수입이 많지 않았음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했고 사이도 더욱 돈독해졌다. 특히 이하늘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여자친구의 강한 생활력과 긍정적인 모습에 정신적 위안을 얻었다.

덕분에 이하늘은 어렵지 않게 생활고를 이겨낼 수 있었고 차츰 심리적 안정을 찾

게 됐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내준 여자친구를 위해 “이제는 꽃길만 걷게 해주자”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관계자는 “이하늘이 경제적으로도 여유롭지 않았고 각종 사건사고에도 많이 휘말렸지만, 그때마다 항상 여자친구가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줬다”고 말했다.

이하늘이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를 시작한 지는 오래됐다. 수년전부터 최측근들에게 “10월10일 제주도에서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도치 않게 여러 해를 넘기게 됐지만 그는 결국 공언한대로 10월10일 제주도에서 양가 친척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조용히 비공개로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하늘이 예식 장소를 제주도도 결정한 것은 평소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여자친구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제주에 작은 펜션을 마련한 것과도 관련 있다. 이하늘은 과거 한 방송에서 “제주도 펜션을 빌려 낮에 결혼식을 올리고 밤에 지인들과 파티를 올리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현장.jpg

“드레스도 어울리오” 여신미모 김태리



‘애기씨의 나들이~’. 연기자 김태리가 22일 서울 신사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의 ‘티파니 페이퍼 플레이’ 론칭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한복, 양복, 작업복을 입고 등장하는 그는 행사장에 어울리는 순백의 드레스와 목걸이, 귀걸이, 반지로 화려함을 뽐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